



# “일과 하나되면 마음에 여백 생겨요”

‘신문밖의 선’은 어떤 것인가. 다시 질문을 던진다. 신문 밖에 살아 자신의 일에 혼신을 불어 넣는 사람들은 아름답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몸도 잊고 마음도 잊어버린 곳에서 영근 하나의 열매가 있다. 그 열매야말로 일에 몰두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숙성된 체험의 소식이리라. 행주좌와 어묵동정 어느 곳에서나 맛볼 수 있는 것이 禪이라 할때 ‘신문밖의 선’은 선과 생활을 구별하지 않고 때와 장소를 따질 필요가 없다. 지렁 1백호를 맞아 산문밖의 화두와 깨달음의 열매가 여려워 ‘어묵’을 새겨본다. <편집자 주>

김용현(서예가): 깨달음은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지만 몸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박준수(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마음 속의 박준수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보희진(시인): 수행 잘해서 부처 되는 것과 시 잘 써서 ‘시인부처’ 되는 것은 같아요.

조문승(배우): 내 작품은 아픔의 산물입니다. 사립이기에 때문에 아파야 하고 그걸 받아 들여야 합니다. 사능숙(비독프로기사): 바둑알 한알 한알이 모두 승부수이고 유혹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편할 때 좋은 수가 나옵니다.

사세욱(한국화가): 지금도 붓 잡으려면 호랑이를 만나야 합니다. 잡아 먹히느냐 때려 잡느냐, 절대절명의 순간이지. 조영동(국악인): 음악 만드는 일이 참 선이고 선율은 선방입니다.

조상원(현암사 설립인): 일에 열중하다 보면 기적이 온다. 그러나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다.

조문호(사진작가): 카메라를 통해 대상물을 들여다 보는 순간의 긴장감과 셔터 누르기 직전의 고요, 셔터를 누르는 찰라의 영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선객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황혜성(공중음식연구원): 음식을 받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것. 공양정신이 있어야 제대로 음식 만들 수 있어요.

김용림(캘리그래피): 장거리를 뛰는 선수 마음으로 준비를 철저하고 인내 가지면 스타가 되고 명예와 상이 오는 것이지만 예나 상이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김동현(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장): 저 석탑은 혼자 서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돌맹이에 생명을 불어 넣은 장인의 영혼이 깃들고 있는 것입니다.

박천갑(조각가): 오늘의 작가는 있는 것에서 없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전병관(역도 국가대표): 내가 없으니 바벨 너조차 없구나

이희수(소설가): 붓으로 하여금 나를 쓰게하여 나도 없고 붓도 없는 자리에서 파편일성의 평하는 순간에 학 한마리가 날아 오르고 매기 한마리가 여유자적으로 물밀을 노리게 해어줍니다.

조찬형(사찰창호 소목장인): 일을 할 때는 아무 생각도 말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 일을 집어치워라.

임호(한국화가): 흙은 진실합니다. 누르면 나오고 퍼면 들어가고 이 흙으로 마음에 걸릴없는 작품을 만드는 거죠.

육명심(사진작가): 참선은 즐겁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열린 시간이며 우주로 시야를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안광석(전각가): 마음이 가는대로 절필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무념무상이 아니고서는 어렵지요.

박계향(판소리명창): 미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곽춘(설치미술가): 시간과 소리의 보이지 않는 형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정태준(가수): 내 음악은 모든 사람들이 해탈할 수 있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이정문(만화가): 나는 내 만화의 주인공을 통해 불교를 배우고 수행합니다.

“학춤 출때는 학이 되고 승무 출때는 선사가 되려 합니다”

“공양정신 있어야 제대로 음식 만들죠”

이영희(무용가): 내가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은 나로인해 결정되고 나로인해 새로 설 수 있음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봉준(석공예가): 돌 속에서 돌을 빼내는 것이 내 일입니다. 쓸데 없는 돌을 다 빼내고 남은 것, 그것이 나의 작품입니다.

이문구(도예가): 흙을 다져 그릇을 빚고 가다듬는 것은 진실한 자신의 마음을 빚고 가다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리만익(화가): 나의 자화상은 나의 그림이며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박동준(차사): 아무리 훌륭한 차라도 그것을 음미하는 사람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진정한 차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박용기(BBS방송위원): 사는 것은 동양 화처럼 여백이 있어야. 요즘은 어떻게

빈전지 뻥뻥한 서영화처럼 살려고 하거든. 마음을 비워야지. 빈칸이 많아야지.

김상렬(연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연극입니다. 저 땅만 무대를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두려움은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박재동(시시인화가): 날마다 하나의 화두를 풀기위해 인간됨을 습니다. 오후 마감 시간까지 그날의 만평 주제를 풀기위해 골몰하는 겁니다.

장호순(대목): 일에 혼을 불어 넣으며 법당을 짓는 동안은 내가 법당이 됩니다.

김덕영(한류무예능 보유자): 학춤을 출때는 학이 되고 지성승무를 출 때는 선사가 되려합니다.

최기철(민물고기연구가): 물고기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자신에게 정해진 묵에 충실합니다.

권영진(무형문화재 毛筆匠): 사람들 가슴에 맺힌 세상의 패를 말끔히 씻어주는 붓을 만드는 것이 평생의 화두입니다.

전수천(설치미술가): 부분이 집착하면 전체가 되지 않고 전체에 집착하면 부분이 허술해 집니다.

박민선(썬웨이보일러 회장): 보일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술적 환경적 조건이 조화를 이뤄야 파란 불꽃의 완전 연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불꽃의 눈부심이 바로 깨달음의 환희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이해주(양복사):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느냐에 양복의 질이 결정돼요. 세상일도 다 그런 것 아닐까요.

이성욱(돌인경 제작자): 돌은 오묘합니다. 산란하거나 고요한 그대로 보여주니까요. 무념무상이 아니면 물건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생강(대금명인): 최고의 연주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열심히 불렀습니다. 50년을 불고나니 1등도 꼴찌도 없더군요.

윤재근(문학평론가): 나를 사랑하고 끌어오르는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선수행이죠.

김영진(대목장): 개천을 때 뇌리를 스치는 것은 섬광이듯 삼라만상은 해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빛을 발하는 부처가 되려는 것이죠.

김선영(대평무 명인):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손짓 하나 발짓 하나라도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을때 살아 있는 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국진(금속활자 장인): 옛날 그대로의 활과 필선들을 훼손된 부분까지 꼭같이

라 해야지. 김천홍(공중무명인): 내 마음이 좁과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의미없는 몸짓에 불과해. 한동작 한동작을 남기는데 온 마음이 비어 있어야해.

윤경열(황토시학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아름다움이야. 우리 부처님은 마음씨 좋은 시골 아낙네, 익살맞은 아저씨의 얼굴 그대로지.

박일순(변호사):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세속법을 부처님 법으로 끌어 올리는 일입니다. 부처님 법의 전달자로서 늘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수(판화가): 삶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여백을 충분히 살피십시오. 여백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반조해 봅니다.

박희선(공학박사): 무념무상에 들면 능력이 탁월해지는데 이경지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과학적 방법은 없을까.

김형석(아구선수):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화두를 꼭 잡고 있습니다.

조훈현(비독프로기사): 부동심을 갖느냐 못갖느냐가 반집자의 승부를 결정합니다.

신영훈(목수): ‘이 밧고’는 집짓는 일 뿐 아니라 모든일에 통하는 방법론입니다.

## 산문밖의 禪

### 100호 특집 語錄모음

다. 최두석(내과의사): 해(解)와 행(行)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으로 무료진료합니다. 남상민(자수연구가): 색실의 조화에서 ‘색즉시공’의 진리를 배웁니다. 이은규(대장장이): 사람은 숙일줄 알아도 쇠는 숙일을 몰라. 황지우(시인): 고통을 견디기 위해 고통을 데리고 살고 삶의 가치를 알기위해 지름을 되돌아 봅니다. 공옥진(청무극명인): 나와 내 춤과 당신, 나와 당신의 웃음과 눈물은 모두 하나요. 이상규(동명농요 기능보유자): 농악과 농군이 어우러지면 모종도 덩달아 춤을 춥니다. 허영호(탐험가): 약조건이라는 상황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모든 사람은 죽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류종민(조각가): 우주와 인간의 진면목을 찾는 것, 이것이 나의 숙제입니다. 김중성(목탁장인): ‘이건 목탁이 아니거나 나무일 뿐’이라는 성철스님 말씀 앞에서 잔재주로 목탁을 만들 수 없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최고 연주자가 되고 싶었는데 50년 불고나니 1등도 꼴찌도 없대요”

“들꽃세상엔 다통도 뽕뽕도 없어요”

문재근(문학평론가): 나를 사랑하고 끌어오르는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선수행이죠.

김선영(대평무 명인):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손짓 하나 발짓 하나라도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을때 살아 있는 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국진(금속활자 장인): 옛날 그대로의 활과 필선들을 훼손된 부분까지 꼭같이

만들어 내는 일이 쉽지만 누군가 해야 하기에 하고 있지요. 김선원(고서화진정인): 옛 사람의 슬픈 글을 보면 나도 슬프고 취해서 쓴 글을 보면 나도 취합니다. 김태정(아생화연구가): 들꽃 세상엔 다통도 뽕뽕도 없습디다. 김경기(문화재위원): 오랜 세월을 견뎌온 유물 처음 만날때의 희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은정식(도예가): 가마에 작품을 구워내는 동안의 긴장에서 초연해 질 수 있어야 하지만 좌절하지 않는 마음을 지키기도 쉽지않죠.

최완수(간성미술관 학예실장): 견성이란 어떤분야에서건 정점에 다다른 것이지요. 산문밖에게 오르면 모든 계곡과 능선이 보이듯.

박상훈(사진작가): 마음속 렌즈로 세상을 볼때 풍경삼매에 빠져요.

한봉덕(화가): 나에게 캔버스가 도량입니다. 그 앞에 앉으면 잡념은 사라지고 그린다는 일념만 남지요.

신명식(버무장): 돌과 일식이 되지 않으면 작품을 만들 수 없어요.

홍정수(드라마): 귀신같이 복원된 문화재를 보면서 나의 불심도 드잡아 울립디다.

이근후(신경정신과의사): 무소유는 정신건강의 명약입니다. 구별의지로 치료할 때 효과 큼니다.

김경옥(양공선수): 시위에서 화살이 떠나기 직전의 마음이 편해져 명종들이 큼니다.

서영석(해부학자): 세포속의 전달체계 숙제풀면 전생도 볼 수 있어요.

박준주(단체장): 돈과 환경에 집착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홍영춘(살일사 대표이사): 주인공에게 나 자신을 맡기며 인간중심의 경영을 하면 기업은 튼튼해 집니다.

김중철(철학자): 하늘과 부모의 은공을 사회로 되돌리는 것이 마지막 원력입니다.

권오수(예복전문가): 고객을 대하면 첫 인상에서 어울릴 색상과 디자인이 떠오릅니다. 개성을 잘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하합니다.

허형구(사진작가 변호사): 길을 떠나면 자연과 만나고 자연의 순리를 모두 담으려 할새 없이 셔터를 눌러둡니다.

이영희(한복디자이너): 현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과거에서 앞 길을 봅니다.

김경수(여성국악인): 신세대가 좋아하는 국악 만들기가 화두입니다.

이순국(신호그룹회장): 소유하지 않는 경영이 최선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어 일하고 있을 뻔입니다.

이태녕(문화재보존과학자): 내 전공의 최신정보는 문화재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접하는 겁니다.

### 봉 道誂寺 주지 진산식 안내 축

귀의 삼보하옵고 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노력하시는 사부대중께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호국참회기도도량인 삼각산 도선사 주지 車東光 스님의 제13대 주지 진산식의 자리를 마련 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40년 11월 15일 오전 11시
- 장소 :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강당 3층

大韓佛敎曹溪宗 護國懺悔祈禱道場 三角山 道誂寺

제13대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일동 합장

### 奉 淸潭 大宗師 25週忌 追慕大法會 案内 行

청담 대종사 25주기 추모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에게 알려드리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 불기 2540년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대강당
- 문의처 : 도선사 주지실 (02) 993-5002, 종무소 (02) 993-3161(3)

불기 2540년 11월 1일

大韓佛敎曹溪宗 護國懺悔祈禱道場 三角山 道誂寺

도선사 주지 차동광 합장 청담 문도회 일동